



부동산 경기 가라앉으니 체납액 ‘깡충’

제주 지방세 체납액 2017년 481억→2019년 735억원
道 ‘징수율 1% 올리기’ 특단 조치로 세수 조기 확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 감소 등 세수여건 악화로 최근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징수율 올리기에 집중한다.
제주도는 최근 납기내 징수율이 감소하고 체납액이 증가하면서 올해 납기내 징수율 1% 이상 올리기를 세정운영 특별대책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3년 간 납기내 징수율은 2017년 87.2%에서 2018년 86.1%, 2019년 84.3%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은 2017년

481억원 2018년 594억, 2019년 735억으로 증가했다.

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도청 1청사 별관 2층 환경마루에서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1% 이상 향상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강화를 위해 도·행정시·읍면동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납기내 징수율 향상이 지방세 조기 확보 및 체납액 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도·행정시·읍면동간 역할·책임 분담으로 징수율 제고를 통해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또 정기분 세목별 납기내 징수율 증감 원인 분석, 진단을 통해 개선 필요 및 중점 추진사항을 도출하고,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굴,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납기내 징수율 1% 이상 올리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부과징수계획 수립시 전년도 납기내 징수율 분석, 행정시 및 읍면동별 징수율 목표 설정, 특별관리 ▷사실상 멸실차량 조사, 일제정리 통한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 등 부과자로 관리 철저로 미납액 원천 차단 ▷고지서 반송처리 전담반 운영, 도·행정시·읍면동 역할 분담을 통한 징수속려반 편성, 책임 징수제 운영 ▷종이 없는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활성화,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모바일 고지서 송달·납부 확대 추진 ▷외국인 등 납세자 맞춤 안내문 제작 및 정기분 부과 안내 문자 2회 발송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올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목표액을 전년 대비 1238억원 (8.6%) 증가한 1조5611억원으로 설정,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 6%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 리스·렌트차량 추가 등록 유치 등 통한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 2000억원 이상 확충, 대규모 개발사업장 감면을 하향 조정 등 지방세입 확충에 나서고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올 첫 열대거세미나방
한달 이상 빨리 나왔다

도농기원, 신속 방제 당부

제주시 한림읍 소재 옥수수 재배 포장에서 올해 첫 열대거세미나방이 발견됐다. 지난해보다 한달 이상 빨리 발견되면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기 예찰과 철저한 방제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과 공동으로 도내 일원에서 실시한 합동 예찰에서 제주시 한림읍 소재 옥수수 재배 포장에서 열대거세미나방 성충(다 자란 곤충, 어른벌레)을 7일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 열대거세미나방은 옥수수, 수수, 벼 등 80여종의 식물을 가해하는 광식성 해충으로 애벌레가 잎과 줄기를 가해한다. 대량 발생 시 작물에 큰 손실을 가져오는데 아프리카에서는 20%, 중국에서는 5~10% 수확량 손실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전에 발견된 성충은 재배포장에 설치한 페로몬 트랩으로 유인해 잡은 수컷으로, 발육 단계로 미뤄 5월 초순쯤 중국에서 국내로 날아온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열대거세미나방으로 의심되는 해충을 발견한 경우 농업재해팀 또는 관할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찰 강화와 빠른 방제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오은지기자

“정부 대응만으로 한계… 지자체 큰 힘”

어제 포스트 코로나 토론회

지역 맞춤형 코로나19 대응에
자치분권 확대 공감대 형성
제주자치경찰 역할 재평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의 감염병 관리 및 치료체계와 더불어 현장 사정을 잘 알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돋보였고, 자치분권 확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김두관 의원실, 행정안전부 및 지방4대 협의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에

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보여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같이 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조치와 적극적 역할이 없었다면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번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가 지역 현장의 아이디어로부터 비롯됐고,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도 먼저 자치단체에서 공론화되고 시행되다 국가적 의제가 된 점을 그 대표적 예로 제시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방역 아이디어는 모두 지방정부에서 시작됐는데 이것이 자치의 힘이고, 이것이 분권의 이유”라고 말했다.

토크쇼로 만나는 빛나는 제주바다

도, 전문 패널 초청해 제작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바다 수중비경 10선’의 선정과정과 다큐멘터리 제작과정의 숨은 이야기를 토크쇼로 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크쇼는 3년간의 수중촬영과 다큐멘터리 제작 등 제주수중비경의 선정과 제작과정의 숨은 이야기를 다이버들과 관련 전문 패널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이달부터 9월까지 제작해 전국 방송을 통해 선보인다.

토론회에선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정부의 성과와 과제(소진광 가천대 교수) ▷코로나 사태를 통해 바라본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우정식 제주 자치경찰단 생활안전과장) 등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우정식 과장은 제주자치경찰의 코로나19대응에 대해 “공향·향만을 관할하는 관광경찰과 중심으로 자체 재난상황실을 구성해 재난대응에 대한 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주는 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단이 도지사의 일원화된 지휘 지원활동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었기에 제주의 초기 방역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두 자치분권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 단체의 역량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부미현기자

해 선보인다. ▷제주바다 수중비경 10선=문섬(수지맨드라미), 범섬(산호정원), 숲섬(흰수지맨드라미), 형제섬(수중이치, 어류떼), 비양도(수중협곡), 관파도(해송7송, 날개), 대관달·소관달(감태군락), 우도(주간명월,고래 쿠키명동굴), 성산 자리여(대형 다급바리), 표선금덕이여(해저분화구, 자리돌떼). 이태윤기자



사려니숲에서 休~ 12일 제주시 조천읍 사려니숲길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기념 사진을 찍으며 제주에서의 추억을 담고 있다. 이상국기자

광어·소라 제주 수산물 값 회복세… ‘드라이브 스루’ 판매 효과 통했나

이달 양식광어 가격 53%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소비 부진과 각국의 입국 제한으로 수출난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산물의 가격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양식광어의 경우 3월 kg당 7500원이었던 가격이 5월 현재 1만2000원으로 53% 가량 올랐으며, 출하량도 3월 1644t에서 4월 2016t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이 같은 회복세가 지난해 10월 수산물 수급안정기금을 투입해 중간 크기(500g급) 활광어 200t을 수매해 시장격리시키는 수급조절 정책과 최근 드라이브 스루 판매 등 적극적인 소비촉진 시책추진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 활소라의 경우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 등으로 수출이 되지않아 해녀어업인의 소라 채취작업이 위축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돼 왔으나, 공직자 활소라 사주기·드라이브스루 판매, 소라가공품 군납 등으로 숨통이 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오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서귀포수협, 이마트 공동으로 전국 이마트 140개 매장에서 제주순갈치 소비촉진 행사(할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가격 및 물량 등 동향을 면밀히 검토·예측해 어업인 경영안정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맛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족 중 010-5015-1951

전액무료

매월최대 400,000 지급
순시·학원방문 상담→고용센터

현장실무 전기공사 기능인 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대 상 — 모집 초기마감될수있음

실업자 / 구직자

— 일정 소득이상 특수고용자, 자영업자, 대기업중자,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학생 등 제외

교육기간

7월초 개강예정 - 7개월 과정 - 개강일 변경 연장될 수 있음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기사, 배관배선공사, 약전, 동력설비, 소방설비 등

※ 필요서류 : 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6주이상 기간 소요됩니다.)

(축) 취업 | 2019년 7월 종로과정 전원취업

(주)제원직업전문학교

Tel. 749-3434 jejujewon.com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원치않는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전택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원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